

광주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1주년 국제포럼 연다

세계 번역가·문학과계와 함께 한국문학인문도시 광주 미래 논의
10~11일 4개 세션·기념행사 진행... 시민 참여형 문학축제 마련

한강 작품을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이 노벨문학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 모여 문학·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가치를 함께 살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부제: 소년, 광장에 서다)'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하고 있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다.
민주주의 정신이 인문·문학의 가치로 확장되는 흐름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전일빌딩245~5·18민주광장~옛 적십자병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걸으며 1980년 광주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오후 2시30분에는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 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열린다.
마야 웨스트(영어), 피에르 비지우(프랑스어), 윤선미(스페인어), 김보국(헝가리어) 등 한강 작품의 주요 번역가가 참여해 번역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강 작품의 의미와 번역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강 작가의 모교인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기념영상이 상영되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션2-한강 문학과 함께 한 1년, 그리고 그 이후'가 열린다.
이광호(문학과지성사 대표), 이기호(소설가), 이슬아(작가), 임인자(지역서점 '소년의서' 대표)가 참여해 노벨문학상 수상 의미와 한국문학의 확장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둘째 날인 11일 오후 2시에는 '세션 3-한국문학과 인문도시 광주'가 열린다. 조진태 작가의 사회로, 김형중 조선대학교 교수, 유희석 전남대학교 교수, 한정현 소설가가 발제하고, 김영삼 문학평론가, 이정화 조선대학교 교수, 김주선 문학평론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강 작가 이후 한국문학의 확장 방향과 광주의 인문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어 오후 4시30분에는 고명철 문학평론가가 주재하는 '세션4-아시아문학



의 힘과 역동성'이 진행된다. 김수우 시인, 정양주 시인, 박금산 소설가가 참여해 아시아문학의 재구축 가능성과 세계문학적 의미를 탐색한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의 정체성을 민주·인권에서 인문·문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시민과 함께 수상의 의미를 돌아보고, 광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518기록관, 개관 10주년 '기억·기록 방향' 모색 국가유산청과 함께 '국가폭력과 기억기관의 역할' 학술대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오는 11~12일 이틀간 기록관에서 '공동체의 기록, 민주주의의 과제: 국가폭력과 기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록관의 기록·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기억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3 불법계엄 등 국가폭력 기억 보존을 위한 기억기관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첫날은 '국가폭력 대응과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기조발표를 통해 국가폭력 대응·청산을 위한 기억기관의 역할을 제시한다. 또,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억의 주제, 기록의 방향'(김익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발표도 진행된다.
이어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기억기관 관계자들이 각자의 기록 내용과 과제를 공유한다.
전체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기억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대회 두 번째 날인 12일에는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공동대응'을 주제로



기관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 이후 국립5·18민주화운동기록관 245 등을 방문하는 참가자 대상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억과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폭력 극복을 위한 공동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억기관과 협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015년 개관한 대표 기억기관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을 포함한 5·18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다. /전혜정 기자

(재)순천문화재단, '2025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작가 성과공유전 개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연말 전시&마켓 운영

(재)순천문화재단은 2025년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가와 단체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과공유 전시를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순천 하안갤러리에서 개최한다.
2025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은 예술인의 순수 창작물 발표를 통한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번

전시는 올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작활동을 진행해 온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의 대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성과공유전은 작품 감상 중심의 전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다양한 미술작품과 굿즈 상품의 전시·판매를 결합한 아트마켓 형식의 전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특히, 전시 참여 작가들의 모든 판매 작

품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참여 작가 개인·단체의 2호 사이드 작품을 한데 모아 구성된 전용 벽면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판매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소담한 창작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연말의 따뜻한 정서를 담은 특별한 선물을 찾을 수 있고, 예술가



는 자신의 작품이 새로운 소장자와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미로센터 캐릭터, 전시로 만난다

9~20일 기획전시 'MIRO...' 진행, 12개 작품 선배

광주 동구는 9일부터 20일까지 미로센터 1층 전시 공간 '미로1'에서 기획전시 'MIRO UNLOCKED:미미와 로로의 비밀 지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현(ZAKHO)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미로센터 상징 캐릭터 '미미(MIMI)'와 '로로(RORO)'를 주인공으로, 이들이 안내하는 모험의 여정을 12점의 작품으로 풀어낸다. 관람객은 각 장면을 따라가며 미로센터가 품어온 다양한 예술적 순간들을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 기간 중인 13일 오전 11시부터는 미로센터 주차장에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라이브 퍼포먼스와 DJ 공연을 비롯해 여러 체험 활동이 마련되며, 관람객이 전시 속 미미와 로로의 세계를 보다 생

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ZAKHO) 작가는 "미로센터의 상징으로 탄생한 이 캐릭터들은, 이 공간이 품어온 수많은 예술적 순간들을 장난스럽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면서 "미미와 로로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풍경들을 열두 개의 장면으로 펼쳐 보인다"고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영감을 전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영광군은 오는 12월 18일(목)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송년특집 '구창모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 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가수 구창모는 밴드 송골매의 맴버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미성, 서정적인 감성,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녀왔다.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송년특집 <구창모 콘서트>

특히 '어쩌다 마주친 그대', '희나리', '방향' 등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함께 재해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송년의 따뜻한 정서를 담아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됐다. 구창모의 감성적인 라이브와 관객과의 소통이 어려우려, 군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광군이 주최, 행복과공감컴퍼니가 주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하며,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영광군민-3,000원/1인 4매 한정)이며, 입장권은 오는 12월 11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지가 있다면

금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민/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